

무너진 기초 질서

6 대책은 없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캠페인을

며칠 전 광주시 동구 총장로 1가 입구에서 무단횡단하는 20대 외국인 남성에게 물었다. “왜 무단횡단을 합니까? 당신도 나라에서도 그렇습니까?”

대답은 간단했다. 틈만 나면 무단횡단을 하는 광주 시민들을 따라 했을 뿐이라. 자기네 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호를 어기면서까지 길을 건너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초질서가 무너진 광주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까지 전이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의 뉴욕시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당시 뉴욕의 슬립가는 빈집이 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쓰레기가 넘쳐

‘음소형’ 캠페인보다 엄중한 과태료 ‘효과’

‘스스로 지키면 편해진다’ 자발적 참여 유도

지키기 ‘거리에 침 안 뱉기’ 등 대대적인 질서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홍콩은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을, 담배꽂이를 버리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에선 불법 주차차 구역에 차를 세울 경우 30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서울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기초질서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과태료 부과 등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가깝게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와 세계여성평화포럼 등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있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수도로 가꿔야 하기 때문에 기초질서 지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기본 덕목이 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도 이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음소형 또는 권유형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아무 곳이나 주차해도 걸린 사람만 걸리는 현재의 단속관행이 계속되는 한 거리의 무질서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경제적 손해를 보게 하는 공평하고도 엄정한 단속,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 단속과 참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꽃불잔치’ 6일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늦재~토끼등 1.5km 구간에 활짝 핀 철쭉을 감상하며, 휴일 오후를 즐기고 있다. 이 길은 1985년도에 조성했으며, 수령 20년이 넘는 철쭉 1만2천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택재개발 요건 완화

‘도시 재정비 조례’ 입법예고

광주시는 6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담았으며 광주시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 요건인 호수밀도(1ha당 노후 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90㎡ 이하 작은 땅의 비율), 주택 점도율(4㎡ 이상 도면에 접한 건물 비율)을 각각 최대치인 20%까지 완화했다. 상세 내용을 보면 호수밀도는 60가

구→48가구 이상, 과소필지 비율은 50%→40% 이상, 주택점도율은 30%→36%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또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응적률과 건물 높이 등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증가된 용적률 가운데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비율은 25~50%로 정했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고, 중심재개발지구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또 조례에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대한 심의·자문을 담당할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효심 깊은 그대 하루라도 쉬세요”

남구 ‘주간 보호센터’ 개소 중풍노인 휴일 돌보기 나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모(여·48·광주시 남구 진월동)씨는 이번 주말 모처럼 휴일 나들이 준비에 열심이다.

7일 광주시 남구 송하동에 문을 연 ‘남구 방문 주간 보호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주는 ‘휴일센터’를 운영하면서 가능해진 나들이다.

김씨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5년 전 중풍을 앓아 거동이 불편해지신 후 치매까지 겹쳐 마흔 놓고 외출 한 번 못했다.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큰아들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둘째는 군대에 있어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김씨의 몫이다.

광주시 남구는 이처럼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느라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가정들을 돕기 위해 남구 송하동 씨티 재활병원에 ‘방문주간보호센터’를 열었

다. 평일 낮 시간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 대상자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재활·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 휴일 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에 대해 가족 휴식을 제공, 병간호에 지원 가정에 행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간보호센터’에는 프로그램 운영실·휴식실·일상동작 훈련실 및 식당과 목욕실 등의 시설이 완비됐고, 씨티재활병원에서 지원한 의사·가정·간호사·정신간호·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를 배치해 보호서비스를 실시한다. 센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최대 이용자는 30명으로 잔할료를 제외한 비용은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문의 남구 보건소 방문 보건팀 (650-8038)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0G급 차세대통신기술 개발 이끈다

광주시-에릭슨 광통신 연구 MOU

광주시가 현재 상용화된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보다 1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통신기술(10G급 PON시스템)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 유림지역 투자유치단은 6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병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광통신연구센터장이 스웨덴의 세계적 원천통신기술 개발업체인 에릭슨(Ericsson)사의 마틴 멜로(Martin Mellor) 부사장을 만나 차세대 광통신 분야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에 관한 투자협정(MOU)을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정보고속도로’라 불리는 광가입자망(FTTH)서비스를 각 가정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광통신 제품의 표준화와 생산을 위해 에릭슨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시범망을 구축해 공동연구하고 사업화하는데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연구원들을 내일부터 에릭슨사에 파견, 공동 기술개발에 나서고 올 연말 시



박광태 광주시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스웨덴 에릭슨사를 방문해 마틴멜로 부사장 등과 함께 투자 MOU를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출국한 유림투자유치단은 또 노르웨이의 자동차 알루미늄 새시 생산업체와 광주에 생산공장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스웨덴의 헬스케어 장비업체·독일 베를린 과학기술재단(TSB)과도 투자협정을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을 확인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카드 수수료 등 5대 거품빼기 추진

5대운동 광주본부 오늘 출범

신용카드 수수료·휴대전화비 등 ‘5대 품목의 거품빼기’를 추진하는 ‘5대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는 7일 오후 광주 YMCA에서 광주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본부가 거품빼기를 추진하는 5대 품목은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 요금 ▲약값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預貸·금융기관이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이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금융기관의 수입)이다.

광주본부는 ▲5대 거품 가격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재경부·보건복지부·산자위·금감위 등 관련 부처에 5대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원가자료 제출과 가격심의위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국회청원 ▲5대 거품 품목에 대한 관계당국 감독책임 추궁 ▲5대 거품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1천만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광주본부에는 지역 YMCA·환경운동연합·전교조·음식업중앙회·참여자치21·장애인총연합회·주택관리사협회·경실련 등 사회단체와 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내일 남구 구민의 날

제 4회 광주 ‘남구 구민의 날’ 행사가 8일 백운광장 옆 삼성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 남구와 남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구민의 날 기념행사·구민참여 한마당·효사랑 데이 행사와

특별 공연·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는 식전행사는 육군보병학교 군악대 공연과 청소년댄스 동아리 공연이 펼쳐지고, 11시에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남구 구민의 날’기념식과 함께 구민상(김철자·조청환·정덕준씨)·효부(안명규·최양자씨)·장수상(최익진동·김복심씨) 시상식이 거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확장 이전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심는가발 탄생!!

- 1997년 CAT 불린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재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 30년 경력의 이용자가 직접착용시술 컷트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 올림픽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프리모남녀가발맞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2-4622~3, 673-5858
원장이 수 채 011-607-5330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문의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l.co.kr

KA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 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 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